

북한

검열의 국경들

김정일 체제에 대항한 정보자유 투쟁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들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해마다 수천 명의 탈북주민들이 남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에 베이스를 둔 언론매체들은 북한 내부와 점점 더 많이 접촉하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밀폐된 나라인가?

지난 7월, 국경없는기자회는 북한 내의 언론자유 및 정보자유 현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한국의 서울을 방문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북한에 대해 마지막 조사를 한 것은 2004년이었는데, 그 이후 북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이해하고자 많은 전문가들과 인권운동가, 탈북주민, 한국의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방문 후, 국경없는기자회는 평양에서 행해지는 검열과 언론통제, 북한 내 정보자유 상황을 다룬 보고서 “북한: 검열의 국경들”을 발표한다.

외국 라디오들은 여전히 북한 주민들에게 독립적인 정보의 주요 제공원이 되고 있다. 암시장에서 단파 라디오를 구입할 수 있는 주민들은 하루에 두세 시간씩 한국어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청취한다. 정보의 유입은 외국 라디오 방송사들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멀티미디어 장비와 콘텐츠를 보내는 기관들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북한당국은 점점 더 확산되는 암시장 거래를 통제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 현재 이런 암시장들은 중국 접경지역을 비롯하여 약 300여 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휴대폰과 DVD 복제품, USB 키뿐만 아니라 다른 디지털 장비들의 거래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이미 7년 전에 “전제주의에 봉사하는 언론”이라는 제목의 첫 보고서에서, 북한당국이 세웠던 “영구 정보 계획”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는 공식 언론매체들이 여전히 변함없이 김정일의 정치선전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북한체제는 현재 아버지의 뒤를 이은 김정은의 후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2012년에 개최될 김일성 탄생 백주년 기념행사는 그를 위한 중요한 행사일 것이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서울에 베이스를 두고 탈북주민들이 운영하는 자유북한방송, 자유조선방송, 열린북한방송과 같은 라디오 방송국들을 2009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이 방송사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이 라디오들은 현재 북한주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